

이탈리아 ITALY



이탈리아, 국영방송사의 성별 분리 채널 운영계획에 사회적 논란 확산

곽 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최근 이탈리아 국영방송사 Rai는 운영 전략 개편의 일환으로 남녀의 다른 선호를 반영한 분리된 TV 채널(남성들이 좋아할만한 프로그램 및 영화를 방영하는 채널,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 및 영화를 방영하는 채널로 특화)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채널 Rai Movie, Rai Premium을 통합하여 남성 시청자들을 공략하는 프로그램 및 영화를 방영하는 채널로 변경하고, 곧 이어 여성 시청자 대상 채널 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방송사 측은 현재 두 채널로 연간 약 3천만유로에 이르는 광고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시청자 수가 적어 이와 같은 변경(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계획안에 대해 Rai 방송사의 한 관계자는 성별로 차별하고 분리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남녀 시청자들이 갖고 있는 성별 수요를 보다 적절하게 겨냥하고 그에 부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야당 국회의원들과 여성단체들로부터 큰 비난을 샀다. 의회 내 방송사심의위원회 위원직을 맡고 있는 민주당(Democratic Party) 소속 살바토르 마르지오타(Salvatore Margiotta) 상원의원은 이번 Rai 방송사의 계획안에 대해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오늘날, 국영방송사에서 여성 시청자, 남성 시청자를 나눠 다룬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RAI 언론인 노동조합인 Trade Union of RAI Journalists (USIGRAI) 역시 성명문을 통해 '특정 시청자들의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이해하나 성별을 기반으로 한 채널 분리 및 운영은 용납하기 어려운 계획이며, 각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탈리아의 여성대상폭력 철폐를 위한 여성단체 및 보호센터 연합 네트워크인 Donne in Rete contro la violenza(D.i.Re) 렐라 팔라디노(Lella Palladino) 대표 역시 이번 계획안에 대해 "매우 성차별주의적인 발상"이라면서, 방송 콘텐츠가 남녀 시청자를 나눠 공략하면서 성차별적 편견이나 그릇된 인식을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이탈리아의 유명 배우 및 여성 단체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nonchiudeteraimovie(Don't Close Rai Movie) 라는 해쉬태그를 달면서 이번 Rai 방송사의 개편안에 대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는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참고자료

- The Guardian (2019.4.19.), "Italian broadcaster's plans for gender-based channels spark fury",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9/apr/19/italian-broadcasters-plans-for-gender-based-channels-spark-fury> (검색일 : 2019.5.10.)
- The Telegraph (2019.4.19.), "Italy's public broadcaster under fire for separate channels for men and women", <https://www.telegraph.co.uk/news/2019/04/19/italys-public-broadcaster-fire-separate-channels-men-women/> (검색일 : 2019.5.10.)

근본적인 우려는 방송사의 계획대로 남녀 별도의 전용 채널을 운영하게 될 경우, 남성과 여성 고객을 위해 분리된 채널이 제대로, 그리고 성평등의 관점에서 상대방 성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문제이다. Rai 방송사가 사회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 고민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방송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다면,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남녀시청자 수요 반영 및 수익 증대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GERMANY



독일, 여성 위생제품 부가가치세 인하 요구 이어져

채혜원 독일통신원

독일에서 여성 위생용품에 부과되는 세율을 현행 19%에서 7%로 낮출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독일의 부가가치세는 두 가지 세율체제로 나뉘는데, 탐폰, 생리대 등 여성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일반 세율인 19%로, 기본 식료품 및 화장지 등 생활필수품 세율 7%보다 높아 문제가 되고 있다.

여성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면하자는 움직임은 독일 내에서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일어났다. 지난해 이 이슈를 공론화한 사회민주당(SPD) 소속 난나 조세핀 롤로프는 여성 위생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줄이자는 당내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여성 위생제품은 럭셔리 용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9%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는 헌법에서도 허용하지 않는 성별에 의한 경제적 차별이며 이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탄원서에는 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했으나, 의회 차원의 여성 위생제품의 부가가치세 인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에 현재 독일 매거진 ‘Neon and einhorn’를 중심으로 한 여러 페미니스트 그룹은 5월 말까지 독일 의회에서 여성 위생용품 부가가치세 인하에 대해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매달 사용해야 하는 여성 위생용품에 대해 고급 상품에 부과되는 19%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되고 있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독일 언론 ‘슈피겔’ 보도에 따르면, 2017년의 시장 조사 연구 결과 독일 여성 절반 이상이 탐폰을 사용하고, 평균 13세에서 51세 사이 여성이 약 456번의 생리 주기를 보내므로, 여성은 생애주기 동안 총 9,120개의 탐폰이 필요한 상황이다.

19% 부가가치세를 7%로 인하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독일 여성 그룹들은 “현재 시스템은 경제적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여성을 차별하고 있다.”며 “여성들은 자신의 의사에 상관없이 매달 위생용품을 사용해야 하며 이런 제품에 지금까지처럼 높은 세율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독일 의회는 5월 28일까지 최소 5만 명이 청원서에 서명하면 부가가치세 인하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다시 독일 언론과 여성계에서 부가가치세 인하에 대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일고 있는 만큼 이 이슈에 대한 독일 사회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참고자료

- Change(2019), “Die Periode ist kein Luxus - senken Sie die Tamponsteuer!”, <https://www.change.org/p/die-periode-ist-kein-luxus-senken-sie-die-tamponsteuer-starkwatzinger-bmfsfj> (검색일:2019.5.12.)
- Deutsche Welle(2019.3.5) “German feminists call for end to ‘luxury tax’ for tampons”, <https://www.dw.com/en/german-feminists-call-for-end-to-luxury-tax-for-tampons/a-48598893> (검색일:2019.5.9.)
- Spiegel Online(2018.8.30.), “Tampons, Binden, Schmerzmittel : Was kostet die Menstruation?”, <https://www.spiegel.de/gesundheit/diagnose/tampons-binden-schmerzmittel-was-kostet-die-menstruation-a-1220188.html> (검색일:2019.5.12.)

한편 여성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전 세계적으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아일랜드와 캐나다, 호주 등은 부가가치세 자체를 폐지하였고, 스웨덴(25%), 이탈리아(22%) 등은 비교적 높은 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독일(19%) 보다 낮은 곳은 스페인 (10%), 스위스(7.7%), 벨기에(6%), 프랑스와 영국(5.5%로 동일) 등으로 이중 스페인과 프랑스는 활동가들의 부가가치세 인하 운동에 대한 결과로 최근 여성 위생용품에 부과되는 세율을 인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CANADA



캐나다, 성평등 관점에서 공공 여성노동자에 생리용품 무료 지급 공론화

김양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캐나다 연방정부는 5월 3일 정부 관보(Canada Gazette)를 통해 연방 노동법의 규율을 받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탐폰과 패드 등의 생리용품을 무료로 지급할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발표문에서 정부는 현 연방 노동법은 고용주도 하oyer금 일터의 화장실에 화장지, 비누, 온수, 손을 씻은 후 젖은 손을 말릴 수단을 제공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는데 생리용품을 비치하라는 규정은 없으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 공무원들은 생리용품을 스스로 준비하여 직장에 가지고 와야 하는 부담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발표는 2018년 플랜 캐나다 인터내셔널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25세 이하의 캐나다 여성 3분의 1이 생리용품을 조달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70%는 생리 때문에 직장이나 학교를 빠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많은 여성들이 일터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갑작스러운 생리에 휴지 등을 사용하여 부적절하게 대응하거나, 적정 시간 이상 생리용품을 오래 착용할 경우 독성물질 쇼크에 노출될 수 있음을 주지하고, 생리용품은 여성 근로자의 정신과 몸 건강에 영향을 끼침을 강조했다. 정부는 또한 여성들이 생리용품을 구할 수 있는 장소가 많지 않은 벽지에 근무하는 경우 생리용품을 구입하는 것이 편리치 않을 뿐더러 더 비싼 생리용품의 가격을 여성이 오롯이 부담해야 함 또한 지적했다.

이어진 언론 브리프에서 트뤼도 수상은 이번 계획의 핵심은 “성평등의 질문”을 담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언론 인터뷰에서 가족부 장관은 이 조치가 ‘정부는 비교적 좋은 대우를 받는 주정부 공무원들에게 정부가 생리용품까지 보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정부가 앞장서 본보기를 세우는데 의의를 뒤야 한다’면서, ‘이제는 어떠한 물품과 서비스가 필수적인 것인지를 새롭게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노동부 장관 또한 성명을 통해 생리를 공론화 시키고 여성 노동자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용품을 제공하는 것은 일터에서의 성평등을 재고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데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했다. 또한 여야 모두가 대체적으로 정부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내면서, 이번 조치가 생리를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게 하는 대중 의식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현재 캐나다 연방정부가 직접 규율하는 인력은 약 120만 여명으로 캐나다 전체 근로자의 6%를 차지하며, 공무원, 경찰, 은행, 교통, 통신사 등에 근무하는 이 근로자들의 약 40%(약 480,000명)가 이번 조치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참고자료

- DEPARTMENT OF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2019.3.4.), “Notice to interested parties — Proposed amendments to certain regulations made under Part II of the Canada Labour Code to require the provision of free menstrual products in the workplace”, Canada Gazette, Part I, Volume 153, Number 18, <http://gazette.gc.ca/rp-pr/p1/2019/2019-05-04/html/notice-avis-eng.html> (검색일 : 2019.5.21.)
- Huffpost (2019.5.3.), “Canadian Government Wants To Make Menstrual Products Free For Federal Workers”, https://www.huffingtonpost.ca/2019/05/03/canada-menstrual-products-government_a_23721476/ (검색일 : 2019.5.21.)
- Plan International Canada(2018). “A Canadian Gender Study - Period Stigma Report, 2018”, <https://plancanada.ca/file/Plan-International-Canada—period-stigma-2018-report.pdf> (검색일 : 2019.5.21.)

한편 최근 캐나다에서는 생리에 대한 공론화가 활발한 추세이다. 화장실에 필수적인 용품들을 규정하는데 왜 여성의 필수품인 생리용품을 포함시키지 않고 이를 여성 개인의 부담으로 전가시키는가 하는 여론이 커지면서 2015년 연방정부는 탐폰과 생리대에 대한 판매세를 철폐 한 바 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뉴 웨스트민스터 학군의 경우, 올 9월부터 학교 화장실에 탐폰과 생리대가 비치할 것을 의무화 했으며, 올해 초 토론토시는 222,000 캐나다 달러의 재정을 들여 시가 운영하는 홀리스 컴퓨터와 지역 커뮤니티 센터 등에 생리용품을 분배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가 생리용품을 물과 화장지 같은 생활의 필수품으로 인식하는데 큰 전환점이 될 것은 분명하지만, 구체적인 실행하는 데는 여전히 많은 난관이 있다. 관보에서도 지정한 바와 같이 기차나 비행기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승객들과 화장실을 같이 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화장실에 생리용품을 비치하는 방식이 어려울 수 있고, 트럭 운전사처럼 근로자가 이동하며 근무하는 경우에도 다른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60일 내에 정부가 해당 계획의 구체적 실행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어떤 용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이며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이 빠른 시일 내에 발표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 UNITED KINGDOM



영국, 생리 기간 여성 수감자에게 생리대 지급 의무화

황수영 브리스톨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영국 정부가 구치소에 수감된 여성이 생리 기간일 때 무료로 생리대를 지급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생리 중인 여성 수감자에게 경찰이 생리용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는 일이 심각한 인권 침해라는 인권 단체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영국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영국 내무성은 4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치소에 있는 여성들이 생리 기간에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무성이 추진 중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찰이 여성 수감자에게 생리용품이 필요하지 먼저 물은 뒤 수감자가 요청할 경우 생리대나 탐폰 등을 무료로 지급하는 것이다. 또한 여성 수감자가 생리를 비롯해 자신의 건강과 관련된 요구를 할 때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여성 교도관에게 따로 상담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꿀 예정이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생리 기간 여성들의 화장실과 세면대를 제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내무성이 법 개정에 나선 이유는 지난해 인권 단체의 강력한 비난에 직면하면서다. 교정시설 수감자의 인권 침해 감시 단체인 'The Independent Custody Visiting Association(ICVA)'는 지난해 1월, 영국 여성평등부 장관 앞으로 여성 수감자의 인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개서한을 보냈다. ICVA는 내무성과 자치경찰위원장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교정 시설에 예고 없이 방문해 수감자들의 인권 침해 사항을 점검한다. ICVA 조사 결과, 교정시설에 수감된 여성이 생리 기간 생리용품을 사용하지 못해 수치심을 경험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 GOV. UK (2019)
"Dignity of women in custody ensured by planned law change",
2019년 4월 24일자
<https://www.gov.uk/government/news/dignity-of-women-in-custody-ensured-by-planned-law-change>
- (접속 일자: 2019년 4월 30일)
- The Guardian (2018)
"Ignoring women's needs in custody breaches their rights, says watchdog",
2018년 1월 4일자
<https://www.theguardian.com/law/2018/jan/04/ignoring-womens-needs-in-custody-breaches-their-rights-says-watchdog>
- (접속 일자: 2019년 4월 30일)
- Reuters (2019)
"UK to provide all female prisoners with free sanitary products",
2019년 4월 25일자

<https://www.reuters.com/article/us-britain-prison-women/uk-to-provide-all-female-prisoners-with-free-sanitary-products-idUSKCN1S025A>

(접속 일자: 2019년 4월 30일)

ICVA는 서한에서 "여성 수감자들은 여성 교도관의 도움 부재로 월경 중일 때 생리용품 사용은 물론 제대로 씻고 옷을 갈아입을 시설을 이용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생리 중인데도 경찰이 보안상의 이유로 속옷은 물론 생리대를 지급하지 않아 종이 수의만 입고 버티는 여성들도 있었으며, 교정시설 안에 화장실은 물론 세면대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어 생리 기간 여성들의 위생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체는 생리 기간 여성을 배려하지 않는 교정시설의 열악한 처우가 유럽인권협약 8조에 사생활 및 가족생활 보호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무성의 법안 개정 움직임에 대해 케이트 캠페인 ICVA 대표는 "앞으로 여성 수감자들이 생리 기간 편하게 화장실을 이용하고 생리용품을 제공받아 교정시설에서 존엄성이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환영했다.



참고자료

- <https://www.theguardian.com/law/2018/jan/04/ignoring-womens-needs-in-custody-breaches-their-rights-says-watchdog>

(접속 일자: 2019년 4월 30일)



스웨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나선 어머니들의 용기

홍희정 울산대학교 젠더연구소 센터 객원연구원

스웨덴 국립범죄예방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취약 지역¹⁾ 거주자의 38%가 밤거리가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리고 응답 여성 중 절반 이상은 밤거리에 대한 두려움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취약 지역에서 여성이 보다 안전하게 밤거리를 통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어머니 워킹 그룹(Mother Walking Group)이 결성되기에 이르렀다.

어머니 워킹 그룹은 스웨덴 스톡홀름 남서쪽에 위치한 피트야(Fittja) 지역에서 제일 먼저 시작되었다. 이 곳은 사회적 취약 계층이 밀집한 지역으로 이민자 비율이 높고, 타 지역에 비해 범죄율도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피트야는 스웨덴 내에서 손꼽히는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이에 피트야에서 오랫동안 거주했던 이민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지역 범죄율을 낮추고, 지역 사회 내 유대 강화를 위해 모임을 갖게 된 것이 어머니 워킹 그룹으로 발전하였다. 피트야 어머니 워킹 그룹은 처음에는 뜻을 같이 하는 7명의 지역 여성들이 주말 저녁 지역 거리를 돌며, 밤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을 집까지 데려다 주는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인근 편의점 등에 혹시나 위험한 일이 벌어진다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소소한 듯 보이는 이러한 활동들은 지역 사회의 안전 제고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동안 피트야에서는 갱단이 활동하여 범죄율이 높았으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신고율은 매우 낮았다. 하지만 모임이 결성된 후 용기를 낸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범죄 신고율은 높아졌고, 경찰의 잦은 출동으로 인해 주취자 간의 싸움이나 갱단의 활동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또한 밤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들도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지역의 변화를 직접 목격한 시민들의 호응도 계속 높아지면서 지금은 8명의 회원과 함께 지역 경찰도 함께 밤거리를 순찰하고 있다.

현재 피트야지역의 대표를 맡고 있는 Fatma Ipek은 더 로컬지와의 인터뷰에서 “어머니 워킹 그룹은 지역 청소년들에게 좋은 어른의 본보기가 될 수 있고, 이 모임에 참여 하는 여성들 또한 지역 사회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여성들과 교류하고 소통함으로써 자존감을 회복하고 있다.”고 하며 이 모임의 긍정적인 면을 언급하였다.

피트야의 어머니 워킹 그룹 활동의 성공으로 유사한 성격의 모임들이 타 지역으로까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²⁾. 스톡홀름 북부에 위치한 린케비(Rinkeby) 지역도 피트야 모임을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어머니 워킹 그룹을 구성하기도 하였다.

참고자료

- <http://www.nattvandring.nu/>
(최종검색일: 2019.04.25.)
- <http://www.nattvandring.se/>
(최종검색일: 2019.04.25.)
- <https://sv.wikipedia.org/wiki/Nattvandring>
(최종검색일: 2019.04.23.)
- <https://www.svd.se/55-no-go-zoner-i-sverige>
(최종검색일: 2019.04.30)
- <https://www.thelocal.se/20181221/how-women-and-mums-are-working-together-to-make-swedens-suburbs-safer>
(최종검색일: 2019.04.23.)

최초의 어머니 워킹 그룹인 피트야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지역의 안전성을 높였다는 가시적인 성과와 함께 이 모임을 주도한 사람들이 바로 스웨덴의 소수자인 이민 여성이라는 점이다. 스웨덴에서의 이민자는 전체 인구의 약 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절반가량은 중동지역 출신이다. 그리고 이들의 대부분은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인해 스웨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향이 높았고, 특히 사회 활동에 제약이 많은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 가족 뿐 아니라 피트야 거리를 걷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고자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딛은 7명의 헌신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

현재 피트야의 어머니 워킹 그룹 대표는 밤거리 순찰뿐 아니라 지역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 스웨덴어와 영어 강좌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민 여성들은 교육 기회가 거의 없거나 짧고, 특히 외국어에 대한 접근도 쉽지 않아 스웨덴 이민 후 일상생활은 물론 자녀 양육에도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머니 워킹 그룹은 그 역할을 점차 확장해 가고 있다. 앞으로 이들의 발걸음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녀들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자 한다.

- 1) 취약 지역은 저소득층과 이민 계층이 밀집해 있고, 범죄율과 실업률이 높은 지역으로 2014년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Husby, Rinkeby, Hujlsta, Tensta 등의 지역이 포함된다.
- 2) 이미 스웨덴에는 어머니 워킹 그룹과 비슷한 성격의 여러 단체들이 존재하는데, 야간 산책을 돕는 Nattvandring, 정치적·종교적 독립된 단체로 기업 후원 및 야간 경비대를 운영하는 Nattvandring.nu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어머니 워킹 그룹은 다른 단체와 차별화되는 특징이 있다.